

[1~2] 다음은 친구 간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수진: 애들아! 정말 멋지지 않니? 가수 ○○이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대.
 재민: (㉠ 눈을 크게 뜨며) 어? 그래?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수진: 공원을 지나가는데 강도가 사람을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걸 보고 쫓아가서 붙잡았다더라. (㉡ 흐뭇한 표정으로)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마음도 참 착해.
 정수: (㉢ 팔짱을 끼며) 애 좀 봐! 넌 너무 감성적이야. 그 가수가 착해서 강도를 붙잡았을까? 유명인이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억지로 나섰다가 운이 좋아 잡은 건 아닐까?
 수진: 그럼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남을 도왔다는 거야? 기사를 보니까 강도를 잡은 건 새벽이던데? 그 가수는 자기가 다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몸을 던진 거라고.
 재민: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군.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남을 도왔다는 거구나.
 정수: (㉣ 고개를 저으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수진: 그런 사람들 많아. 지난 여름방학 때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거든. 근데 거기에 오는 자원봉사자들은 아무 대가 없이도 진심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고 있었어.
 재민: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이구나. [A]
 수진: 그렇지! 그런데, 정수 너도 지난번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시던 할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렸잖아? 그때 너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할머니를 도와준 거 아냐?
 정수: (㉤ 머리를 긁적이며) 내가 그랬었나.....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외의 사실에 놀랐음을 나타낸다.
- ② ㉡: 대상에게 감동 받았음을 표시한다.
- ③ ㉢: 상대의 판단에 대한 못마땅함을 드러낸다.
- ④ ㉣: 상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한다.
- ⑤ ㉤: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낸다.

2.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A]의 말하기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공감적 듣기는 청자가 화자의 입장이 되어 그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듣는 방법이다. 이것은 화자의 말을 경청하는 ‘수용’ 단계,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이해’ 단계,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청자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거나 화자에게 새로운 견해를 이끌어 내는 ‘반응’ 단계로 이루어진다.

	단계	내용
①	수용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②	수용	화자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화자의 발언이 완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군.
③	이해	질문을 하여 화자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군.
④	반응	화자의 말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자신의 말로 다시 표현하고 있군.
⑤	반응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화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군.

3. 다음은 체육대회에서 학생회장이 한 인사말이다. ㉠~㉤ 중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 저는 학생회장 ○○○입니다. 여러분, ㉡ 저기 하늘을 좀 봐 주십시오. 오늘은 체육대회를 하기 정말 좋은 날씨지요? 이렇게 화창한 가을날, ㉢ 동문 선배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체육대회를 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체육대회는 우리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의 자리입니다. ㉣ 선수 여러분, 최선을 다해 ㉤ 멋진 경기를 펼쳐 주십시오.

- ① ㉠: 화자가 자신을 ‘저’로 낮추어 공손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좀’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것을 공손하게 요청하고 있다.
- ③ ㉢: ‘모시고’를 사용하여 발화 상황에 맞게 공손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선수 여러분’이라는 높임의 호칭을 사용하여 공손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주십시오’를 사용하여 명령문 대신 평서문으로 공손함을 실현하고 있다.

[4~5] 다음은 거란의 '소손녕'과 고려의 '서희' 간에 이루어진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서기 993년, 거란의 소손녕이 고려에 항복을 요구하기 위해 80만 병력을 앞세워 침범하자,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고려의 서희가 거란 진영에 도착하였다.

소손녕: 나는 대국의 귀인이요. 절을 올리는 예를 갖추시오.
 서희: 무슨 말인가? ㉠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 뜰에서 절하는 것은 예법에 있는 일이나, 두 나라의 대신이 대면하는 좌석에서 절하는 일은 없는 법이요.

뜰에서 마주 절을 한 후에 마루로 올라가서 마주 앉았다.

소손녕: 당신의 나라는 옛 신라 땅에서 일어났기에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거란의 것이요. ㉡ 그러니 우리 땅에서 물러나시오.
 서희: 그렇지 않소. 우리 고려가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부르고 평양을 서경으로 정한 것이요. 그렇게 말한다면 현재 거란 땅인 동경이 우리 국토 안에 들어와야 하거늘 어떻게 우리가 침범했다는 말을 하시오? [A]

소손녕: 그럼, 그건 그렇다고 치고..... 으흠, 여진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이 모두 우리와 국교를 맺고 있는데, 왜 고려만은 우리와 국교를 통하지 않는가?
 서희: ㉢ 산에 산적이 우글거리는데, 어찌 산에 오를 수 있겠소?
 소손녕: 도적들 때문에.....
 서희: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소. 이 지도를 보시오. (지도를 가리키며) 여진이 가로막고 있어 우리도 어쩔 수 없단 말이요. ㉣ 압록강 안팎은 우리의 영토인데 지금 여진이 그곳을 강점하여 거란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 귀국에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어렵소. 그러니 어찌 국교를 맺을 수가 있겠소.
 소손녕: 그렇군요. 음..... 그럼, 여진을 먼저 몰아내야겠군.
 서희: 그렇소. ㉤ 만일 여진을 몰아내고 고려가 옛 땅을 회복하면, 그때는 귀국과 국교를 통할 수 있을 것이요.
 소손녕: 좋소! 그럼 그렇게 합시다.

4. [A]에 나타난 문제 해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의 내적 의도를 간파하여 미리 대처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 ③ 상대의 논리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④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며 상호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 ⑤ 상대의 감정에 호소하며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5.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의사소통 규칙에는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대화 상황에 맞도록 말하는 관련성의 격률이 있다.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화자가 함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깬 발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대화함축'이라고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6. <보기>의 내용에 착안하여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오늘은 떡볶이 만드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누리집*에 올리려고 합니다. 떡볶이는 고추장 떡볶이, 간장 떡볶이, 짜장 떡볶이 등이 있는데, 개인의 기호에 따라 주된 양념장을 골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떡볶이에 필요한 떡, 각종 야채, 어묵 등을 손질합니다. 이 재료와 양념장의 조화에 따라 맛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양념장과 재료를 넣고 센 불에서 끓입니다. 떡이 어느 정도 익고 양념이 떡에 잘 배면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떡볶이의 사진도 찍어 누리집의 '뽀내기 게시판'에 올려 솜씨를 자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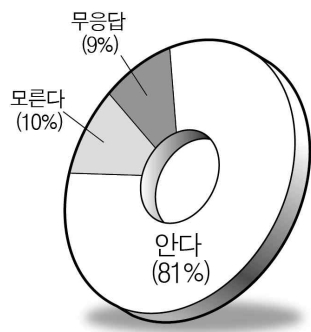
*누리집: 홈페이지를 순화한 우리말

- ① 어려움이 생기면 지도 교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 ② 자신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동아리를 선택한다.
- ③ 동아리 활동 목적에 따라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 ④ 동아리 발표회에 참가하여 활동 결과를 발표한다.
- ⑤ 구성원의 화합과 협동이 동아리의 성공을 좌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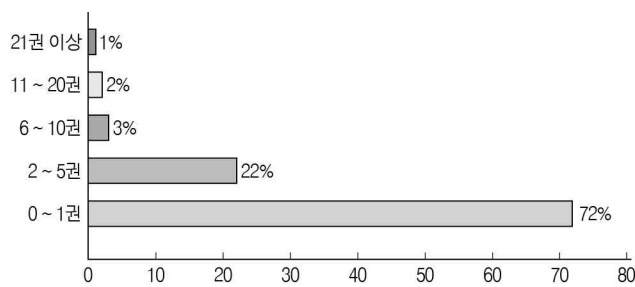
[7~8] 다음은 '청소년 권장 도서'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모은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대학교 권장 도서 독서 실태 조사
(설문대상: ◇◇ 고등학교 학생 500명)

1. 권장 도서 목록이 있는지 알고 있는가?



2. 권장 도서(100권)를 얼마나 읽었는가?



(나) 신문 기사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 대학교에서 제시한 권장 도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권장 도서가 어렵고 지루하여 읽기를 포기하였다고 말하였고, 권장 도서를 읽은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 ◇◇ 고등학교 독서 신문, 2014년 9월 호

(다) 인터뷰

우리 독서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권장 도서를 정할 때, 청소년들의 흥미와 경험을 고려해서 청소년들이 읽기 쉬운 책들을 선택해요. 해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권장 도서 목록을 정하고 있는데, 호응이 참 좋아요. 이러한 권장 도서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독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 △△△ 독서회 대표

7. 자료의 해석 및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1과 (가)-2를 활용하여 ○○ 대학교 권장 도서 목록이 독서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실태를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권장 도서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 ③ (가)-2와 (나)를 활용하여 권장 도서의 독서량이 적은 이유가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임을 밝힌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독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권장 도서를 읽지 않는 것임을 밝힌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권장 도서 목록을 정할 때, 학생들의 책읽기 수준이나 관심 등을 반영해야 함을 제시한다.

8. <보기>를 바탕으로 권장 도서의 독서를 장려하는 홍보 문구를 만들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추가 자료]

컴퓨터만 켜면 수많은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에 청소년들은 고전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전 속에는 시대를 초월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전을 읽음으로써 문제를 다양하게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 ○○ 대학교 교수

<조건>

- 추가 자료의 내용을 반영할 것
- 은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독서의 햇볕을 받고 자라는 나무
바로 독서하는 당신입니다
- ② 책과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
세대를 초월하는 경험 고전과 함께해요
- ③ 고전은 풍요로운 삶의 길을 여는 지혜의 열쇠
고전을 읽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세요
- ④ 책꽂이 빈자리가 늘어날수록 좁아지는 우리의 마음
고전으로 우리의 생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요
- ⑤ 독서 활동은 청소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게 될 지름길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 행복의 깊이를 배로 늘리세요

[9~10] 다음은 '말의 힘'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보고서의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제목: ㉠

I. 탐구 동기
다큐멘터리 '말의 힘'을 시청하고, 실제 언어 실험을 통해 말의 힘을 확인하고 싶었음.

II. 탐구 목적
언어 실험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말이 식물의 생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

III. 탐구 방법 ㉡

1. 물을 담은 용기와 양파를 두 개씩 준비함.
2. A 양파에는 긍정적인 말을, B 양파에는 부정적인 말을 매일 3회씩 함.
3. 3주 동안 1주 간격으로 물의 혼탁성과 양파의 성장 정도를 관찰함.

IV. 탐구 결과 ㉢

1. A 양파의 물에 비해 B 양파의 물이 더 혼탁함.
2. A 양파가 B 양파보다 잎, 뿌리의 발육이 왕성함. ㉣
3. 올바른 언어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함. ㉤

V. 결론 및 제언
언어 실험을 통해 말의 힘을 확인함.

9. 위 개요의 수정 및 보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는 'II. 탐구 목적'에 맞게 '말이 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넣는다.
- ② ㉡에 'IV. 탐구 결과'의 정확한 비교 도출을 위해 'A와 B 양파의 환경적 조건을 동일하게 맞춤'을 하위 항목에 추가한다.
- ③ ㉢에 'II. 탐구 목적'에 따라 기간별 양파의 발육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료로 제시한다.
- ④ ㉣은 'III-3'을 고려할 때, 'IV-1'과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 ⑤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V. 결론 및 제언'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10. <보기>는 'V. 결론 및 제언'의 일부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실험을 통해 말이 식물의 생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A 양파의 물에 비해 B 양파의 물은 혼탁해졌다. ㉠ A 양파에는 긍정적인 말을, B 양파에는 부정적인 말을 매일 3회씩 했다. 그리고 A 양파는 건강하게 자랐으나 B 양파는 시들해지고 ㉡ 생기가 없으며 잘 자라지 못했다. 이로써 사람의 말이 식물의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 미친다. ㉣ 말에는 힘이 있다. ㉤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 실험을 계기로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① ㉠은 문장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 ② ㉡은 앞말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 ③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로 고친다.
- ④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부터 문단을 구분한다.
- ⑤ ㉤에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상처를' 뒤에 '받을 수도 있고'를 넣는다.

11. <보기>의 음운 카드를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ㄱ

ㅁ

ㄴ

ㄷ

- ① 'ㅁ', 'ㄴ', 'ㄱ'을 차례로 사용하면 '떡'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군.
- ② '떡'의 가운데소리인 'ㄴ' 대신 'ㄷ'를 사용하면 새로운 단어가 되는군.
- ③ '목 : 곱'에서 보면 첫소리가 끝소리에, 끝소리가 첫소리에 쓰일 수 있군.
- ④ '떡 : 목'처럼 가운데소리는 첫소리의 오른쪽에 써야 하는군.
- ⑤ '목 / 떡 / 곱 / 검'처럼 음운의 결합에 따라 의미가 다른 여러 단어를 만들 수 있군.

12. <보기>를 참고하여 외국 학생이 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조언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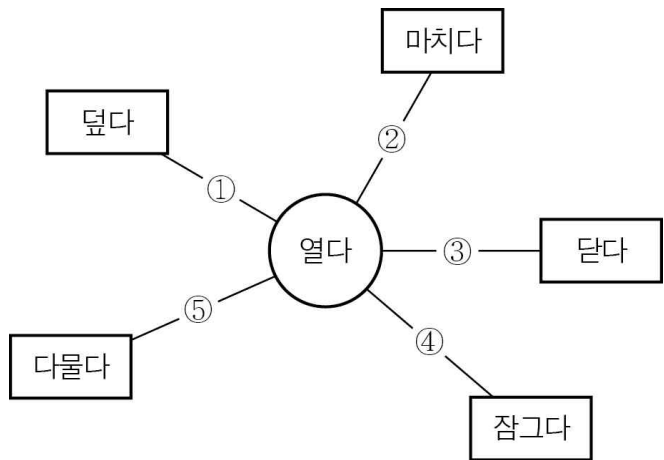
<보 기>

조음방법 \ 조음위치	두 입술	윗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안울림 소리	파열음	ㅂㅃㅍ	ㄷㅌㅎ		ㄱㅋㄷ
	파찰음			ㅈㅊㅊ	
	마찰음		ㅅㅆ		ㅎ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① '불'은 '돌'처럼 혀끝을 윗잇몸에 닿게 해서 소리 내야 해.
- ② '불'은 '굴'처럼 혀바닥을 여린입천장에 밀착시켜 소리 내야 해.
- ③ '불'은 '놀이'와 달리 두 입술을 맞닿게 하면서 목청을 울리지 않고 소리 내야 해.
- ④ '불'은 '돌', '굴'과 달리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 내야 해.
- ⑤ '불'은 '돌', '놀이'와 달리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목청을 울리며 소리 내야 해.

13. <보기>의 밑줄 친 단어를 반의어 사전의 의미 그물망과 연결하여 이해할 때 알맞은 위치는?

<보 기>
이번 학생회 대의원회를 여는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14. <보기>에 나타난 사회 방언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진찰한 후
의사 1: 이 환자의 상태는 어떨지?
의사 2: 아직 확진할 순 없지만,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계항진에 문제가 보이고, 안구진탕과 연하곤란까지 왔어. 육안 검사로는 힘드니까 자세한 이학적 검사를 해봐야 알 것 같아.
의사 1: CT 촬영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겠는걸. MRI 촬영 검사를 추가하여 검사해 봐야겠군.
의사 2: 그렇게 하지.

- ① 성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② 세대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이해한다.
- ③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④ 듣기 거북한 말에 대해 우회적으로 발화한다.
- ⑤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말을 많이 만들어 쓴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러한 현상은 ‘제도’의 탓일까, 아니면 ‘문화’의 탓일까? 이 논쟁은 정치학을 비롯한 모든 사회과학에서 두루 다루는 주제이다. 정치학에서 제도주의자들은 보다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화주의자들은 실제적인 ‘운용의 묘’를 살리는 문화가 제도의 정비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문화주의자들은 문화를 가치, 신념, 인식 등의 총체로서 정치적 행동과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일정한 행동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들은 국민이 정부에게 하는 정치적 요구인 투입과 정부가 생산하는 정책인 산출을 기반으로 정치문화를 편협형, 신민형, 참여형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편협형 정치 문화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개념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정치 문화이다. 투입이 없으며, 정부도 산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자아가 있을 수 없다. 사실상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존재할 수 없는 사회이다. 샤머니즘에 의한 신정 정치, 부족 또는 지역 사회 등 전통적인 원시 사회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 신민형 정치 문화는 투입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사회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출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국민이 정부가 해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국민은 정부에 복종하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편협형 정치 문화와 달리 이들 국민은 정치 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독재 국가의 정치 체계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참여형 정치 문화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출할 줄도 알고, 정부는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자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적극적 참여자들로 형성된 정치 체계가 존재하는 사회이다. 이는 선진 민주주의 사회로서 현대의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상이다.

정치 문화 유형 연구는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주의자들은 국가를 특정 제도의 장단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 요소들이 민주주의라는 보편적인 목적을 위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19. 윗글을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 ①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 ② 정치 제도보다 정치 체도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 ③ 정치 문화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투입에서 산출로 바꾸어야 한다.
 - ④ 정치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정치 체도를 개선하는 것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20. ㉠을 표로 정리할 때 알맞은 것은?

유형	정치 체계 인식	투입	산출	적극적 참여자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 있다, -: 없다)

21.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독재 국가에서 선거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어 가는 갑국은 종교별 투표 성향이 강한 나라이다. 갑국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려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의 지지를 받은 A가 유효 투표수의 1/3을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자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현재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국의 여러 시민 단체들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못하면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절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이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 ① 갑국은 투입보다 산출이 활성화되어 있군.
- ② A는 투표 성향과 투표 제도 때문에 당선되었군.
- ③ 갑국은 신민형에서 참여형으로 정치 문화가 변하고 있군.
- ④ 시민 단체들은 정치적 현상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군.
- ⑤ 문화주의자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제도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제시하겠군.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사회가 단일한 가치로 통일된 절대주의적 사회라면,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인정하는 상대주의적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건국과 함께 성리학이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은 이래로 조선 성리학자들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性善)을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 이것을 수양과 교화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불교와 양명학은 이러한 인간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 만약 성선의 가치관이 파기된다면, 선악 판단이 불가능한 혼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선 성리학자들에게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대응은 조선 전기 동안 중요한 문제였다.

17세기말 시작된 호락논쟁(湖洛論爭)은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대응이면서 성리학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던 가치상대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내부적 논쟁이었다. 이들은 인간의 본성인 인성과 타 존재의 본성인 물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의 호론과 근본적으로 서로의 본성은 같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의 낙론으로 나뉘었다. 호론은 불교, 양명학 등이 불러일으키는 성선의 절대성 약화를 우려하였다. 그래서 호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 본성인 성선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반면 낙론은 현실적 대응 방법이 호론과 달랐다. 낙론의 선조격인 김창협은 호론의 주장을 따를 경우 발생할 도덕적 규율에 의한 억압과 욕망의 질식 상태를 인정할 수 없었다. 즉 욕망은 부정되어야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라고 본 것이다. 욕망을 인간 본성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인정함으로써 결국 낙론은 모든 사물마다 고유한 각각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상대적 가치에 대한 인정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모든 사물을 관찰을 통해 새롭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대두하였다.

19세기의 조선 성리학자에게 모든 것이 가치 있다는 낙론의 주장은 사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고증을 통해 과거의 사물에 대해 철저하게 탐구하고자 하였고, 최한기는 김정희와 달리 사물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리·천문·의학 등의 서양 학문에 관심을 가졌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조선 성리학자들은 근대의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봉건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탈피의 순간에 일본의 강점으로 역사적 학문적 단절을 맞게 됨으로써 이러한 노력은 더 이상의 발전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22. 윗글을 통해 이끌어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교와 양명학에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들어 있다.
- ② 호론의 본성관은 전통 성리학자들의 태도와 상반된다.
- ③ 호락논쟁은 필연적인 성리학적 과제로부터 비롯하였다.
- ④ 낙론의 주장은 사물에 대한 학문적 탐구의 길을 열었다.
- ⑤ 조선 성리학의 근대적 발전은 외부의 힘에 의해 단절되었다.

23. ㉠의 본질을 담고 있는 주장은?

1428년 진주에 사는 김화가 저지른 인륜을 어긴 범죄에 대하여 ① 김화를 엄벌하자는 주장과 ②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이때 세종은 ③ 무엇보다 천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세상에 효행의 풍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서적을 간행해서 ④ 백성들이 항상 읽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취지에서 『삼강행실도』를 만들었다. 이 책에는 ⑤ 모든 사람이 알기 쉽게 하자며 매 편마다 그림을 넣었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연암 박지원은 「허생전」을 통해 당대 사회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글공부에 매진하던 허생은 상업행위로 이룬 거대한 부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청나라를 오랑캐로 규정한 북벌론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던, 당대의 지배층을 맹공하였다. 특히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파의 주장에 이러한 박지원의 사고가 큰 영향을 주었다.

- ① 허생은 인물성동론의 태도로 청인을 인식하고 있었겠군.
- ② 북벌론은 낙론보다는 호론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었겠군.
- ③ 북학파와 지배층은 사회적 문제 해결의 관점이 달랐겠군.
- ④ 지배층은 조선인과 청인의 본성을 모두 성선으로 보았겠군.
- ⑤ 박지원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겠군.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은 지구 중력의 변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작은 미립자와의 충돌 등으로 궤도도 변하고 자세도 변한다. 힘이 작용하여 운동 방향과 상태가 변하는 것이다. 뉴턴은 이를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설명할 것이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그 힘을 작용한 물체에도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예를 들어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 벽을 손으로 밀면 의자가 뒤로 밀리는데, 사람이 벽을 미는 작용과 동시에 벽도 사람을 미는 반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나 운동하고 있을 때 모두 성립하며, 두 물체가 접촉하여 힘을 줄 때뿐만 아니라 서로 떨어져 힘이 작용할 때에도 항상 성립한다.

인공위성의 상태가 변하면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궤도와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구 표면을 관측하는 위성은 탐사 장비를 지구 쪽을 향하도록 자세를 고쳐야 하고, 인공위성에 전력을 제공하는 태양 전지를 태양 방향으로 끊임없이 조절해야 한다. 이 때 위성의 궤도와 자세를 조절하는 방법도 모두 작용 반작용을 이용한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로켓 엔진과 같은 추력기를 외부에 달아 이용하는 것이다. 추력기는 질량이 있는 물질인 연료를 뿜어내며 발생하는 작용과 반작용을 이용하여 위성을 움직인다. 위성에는 궤도를 수정하기 위한 주추력기 이외에 ㉠ 소형의 추력기가 각기 다른 세 방향(x, y, z 축)으로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해 자세를 수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10년이 넘게 사용할 위성에 자세 제어용 추력기가 사용할 연료를 충분히 실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 반작용 휠을 이용한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위성에는 추력기처럼 세 방향으로 설치된 3개의 반작용 휠이 있어 회전수를 조절하면 위성의 자세를 원하는 방향으로 ㉢ 맞출 수 있다. 위성 내부에 부착된 반작용 휠은 전기 모터에 휠을 달고, 돌리는 속도를 높여주거나 낮춰주어서 위성을 회전시켜 자세를 바꾼다. 일반적으로 물체가 한 방향으로 돌 때 그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발생한다. 반작용 휠이 돌면 위성에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만 궤도 수정과 같은 위성의 위치 변경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반작용 휠은 자세 제어용 추력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추력기를 이용하면 연료가 있어야 하고, 그만큼 쏘아 올려야 할 위성의 무게도 증가한다. 반작용 휠을 이용하면 필요한 것은 전기이며 태양 전지를 이용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원리는 유사하지만 보다 경제적인 방식이 인공위성에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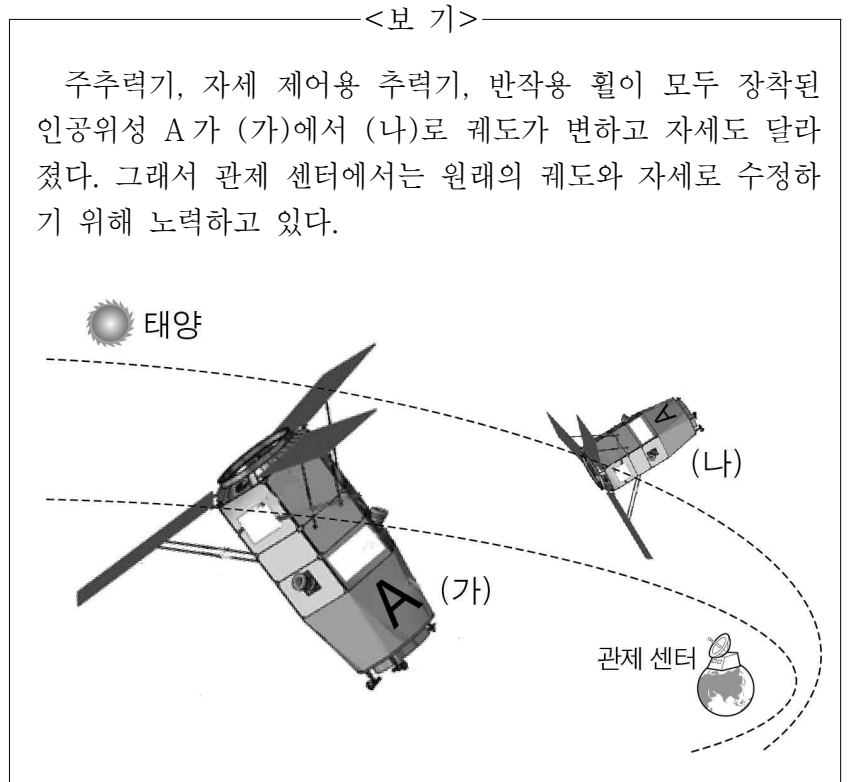
25.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도 작용이 존재한다.
- ② 반작용은 위성이 지구와 인접해 있어야 나타난다.
- ③ 중력의 변화는 위성의 자세나 궤도를 변하게 한다.
- ④ 위성의 추력기는 방출되는 물질의 반작용을 이용한다.
- ⑤ 미립자가 위성과 충돌하면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

2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위성의 외부에, ㉡은 내부에 설치된다.
- ② ㉠과 달리 ㉡은 물체의 회전 운동을 이용하고 있다.
- ③ ㉡과 달리 ㉠은 x, y, z 축의 세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 ④ ㉡과 달리 ㉠을 작동하면 위성 전체의 질량이 변화한다.
- ⑤ ㉠과 ㉡은 모두 반작용을 이용해 위성의 자세를 제어한다.

27.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상황에서 '관계 센터'의 판단과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A가 (가)에서 (나)로 변한 원인을 위성의 주추력기가 계속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 ② (가)의 궤도로 (나)에 있던 A를 움직이기 위해 세 방향의 자세 제어용 추력기를 가동한다.
- ③ A의 궤도를 (가)로 고치려고 태양 전지를 태양에 맞추고 반작용 휠을 작동한다.
- ④ 주추력기로 (나)에서 (가)로 궤도 수정을 한 후에 반작용 휠의 회전수를 조절하여 A의 자세를 제어한다.
- ⑤ A는 궤도가 한번 변하면 수정을 할 수 없어 (나)에서 추력기와 반작용 휠을 이용해 A의 자세만 조정한다.

28. 밑줄 친 단어 중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우리는 발을 맞추어 길을 걸었다.
- ② 나는 어머니께 한복을 맞추어 드렸다.
- ③ 나는 친한 친구와 답을 맞추어 보았다.
- ④ 나는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어 산새를 찍었다.
- ⑤ 우리는 일련번호를 맞추어 문서를 정리하였다.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며, 100℃에서 끓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고, 0℃ 이하에서는 고체인 얼음으로 변한다. 만일 물이 상온 상태에서 기체이거나 또는 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 고체 상태라면 물이 구성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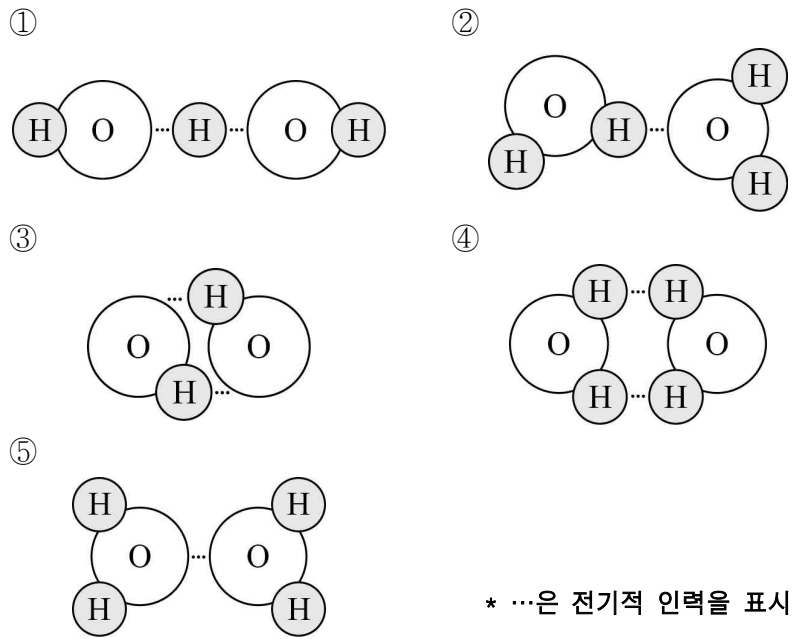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에 의존하는 것은 무엇보다 물 분자 구조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물 1분자는 1개의 산소 원자(O)와 2개의 수소 원자(H)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2개의 수소 원자는 약 104.5°의 각도로 산소와 결합한다. 이 때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전자를 1개씩 내어서 전자쌍을 만들고 이 쌍을 공유한다. 하지만 전자쌍은 전자친화도가 더 큰 산소 원자 쪽에 가깝게 위치하여 산소 원자는 약한 음전하(-)를, 수소는 약한 양전하(+)를 띠게 되어 물 분자는 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극성을 띤 물 분자들끼리는 서로 다른 물 분자의 수소와 산소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결합이 형성된다.

물 분자가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이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용매 역할을 하며, 각종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물은 혈액을 구성하고 있어 영양소, 산소, 호르몬, 노폐물 등을 운반하며, 대사 반응, 에너지 전달 과정의 매질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된 구조는 물이 비열이 큰 성질을 갖게 한다. 비열은 물질 1g을 온도 1℃를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데,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다. 체액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한 추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아 준다. 특히 우리 몸의 여러 생리 작용은 효소 단백질에 의해 일어나는데, 단백질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므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 분자는 극성을 띠어 전기적 인력을 가진다.
- ② 물의 분자 구조는 혈액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 ③ 물은 물질의 전달 과정에서 매질로 역할을 한다.
- ④ 물 분자를 이루는 산소와 수소는 전자를 공유한다.
- ⑤ 물의 비열 변화는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30. [A]를 도식화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린 자식을 데리고 굶다 못하여 형님 처분 바라자고 염치 불구하고 왔사오니 양식이 만일 못 되거든 돈 서 푼만 주시오면 하루라도 살겠나이다.”

놀부 더욱 화를 내어 하는 말이,

“이놈아, 들어 보아라. 쌀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켓돈 헐며, 쌀 한 되나 주자 한들 너 주자고 대독에 가득한 걸 떠내며, 의복가지나 주자 한들 너 주자고 행랑것들 벗기며, 찬 밥술이나 주자 한들 너 주자고 마루 아래 청삽사리를 굶기며, 지게미나 주자 한들 새끼 낳은 돼지를 굶기며, 콩 섬이나 주자 한들 큰 농우가 네 필이니 너를 주고 소 굶기랴. 염치없고 체면 없는 놈이로다.”

흥부 하는 말이,

“아무리 그러실지라도 죽는 동생 살려 주오.”

놀부 화를 버럭 내어 벽력같은 소리로 하인 마당쇠를 부르니 마당쇠가,

“예”

하고 나오거늘, 놀부 분부하되,

“이놈아, 뒤 광문 열고 들어가면 저편에 보리 쌓은 더미 있지?”

이때 흥부 그 말 듣고 내심에,

‘옳다! 우리 형님이 보리 말이나 주시려나 보다.’

하고 은근히 기꺼하더니, 놀부놈이 마당쇠를 시켜 보리 섬 뒤에 두었던 도깃자루 묶음을 내놓고 손에 맞는 대로 골라 잡더니 그만 달려들어 흥부 뒤통지를 잔뜩 훔쳐 쥐고 몽둥이로 함부로 치는데, 마치 손 쟁스님의 비질하듯, 상좌 중이 범고 치듯 아주 탕탕 두드리니, 흥부 울며 하는 말이,

“예고 형님, 이것이 웬일이오? 방약무인(傍若無人) 도척*이도 이에서 성인이요 무거불측(無據不測) 관숙*이도 이에서는 군자로다. 우리 형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오? 아니 주면 그만이지지 때리기는 무슨 일인고, 예고 어머니, 나 죽소!”

놀부의 모진 마음 그래도 그치지 아니하고 지끈지끈 함부로 치다가 제 기운에 못 이기어 몽둥이를 내던지고 숨을 헐떡이며,

“이놈, 내 눈앞에서 뵈지 마라.”

하고 사랑으로 분분히 들어가며 문을 벼락같이 닫으니,

이때 흥부는 어찌 맞았던지 일신이 느슨하여 돌아갈 마음 그지없건만, 그중에도 형수나 보고 가려고 엉금엉금 기어 부엌 근처로 가니 놀부 아내가 마침 밥을 푸는지라. 흥부가 매 맞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 날 굶은 창자에 밥 냄새 맡더니 오장이 뒤집히어,

“에고, 형수씨, 밥 한 술만 주오. 이 동생 좀 살려 주오.”

하며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니, 이년 또한 몹쓸 년이라 와락 돌아서며 하는 말이,

“남녀가 유별한데 어디를 들어오누?”

하며 밥 푸던 주걱으로 흥부의 바른 뺨을 지끈 때리니, 흥부가 그 뺨 한 번을 맞은 즉슨 두 눈에 불이 화끈하며 정신이 어쩔하다가 뺨을 슬며시 만져 보니 밥이 불따귀에 붙었는지라 일변 입으로 훔쳐 넣으며 하는 말이,

“아주머님은 뺨을 쳐도 먹여 가며 치시니 감사한 말을 어찌 다 하오리까. 수고스럽지마는 이 뺨마저 쳐 주시오, 밥 좀 많이 붙은 주걱으로. 그 밥 갖다가 아이들 구경이나 시키겠소.”

① 이 몹쓸 년이 밥주걱은 놓고 부지깁이로 흥부를 흠뻑 때려 놓으니, 흥부 아픈단 말도 못하고 하릴없이 통곡하며 돌아오니 천지가 망망하더라.

(중략)

흥부 아내 생각에 시형 내의 마음을 짐작할지라.

“그만 두시오, 알겠소. 형님 속도 내가 알고 시아주버니 속도 내가 아오. 돈 닷 냥, 쌀 서 말이 무엇이오. 내게다 그런 말을 하시오?”

하며 자기 남편을 보니 유혈이 낭자하여 얼굴이 모두 붓고 온몸을 만져보니 성한 곳이 바이었으니, 흥부 아내 기가 막히어 땅에 펄쩍 주저앉으며,

“에고, 이것이 웬일인가, 가기 싫다 하는 가장 내 말 어려워 가시더니 저 모양이 웬일이오, 팔자 그런 이 몹쓸 년 가장 하나 못 섬기고 이런 광경 당하게 하니 잠시인들 살아 무엇 하리. 모질고 악한 양반, 구산같이 쌓인 곡식 누구 주자 아끼어서 저리 몹시 친단 말고.”

흥부의 착한 마음 형의 말은 아니하고,

“여보 마누라, 슬퍼 마소. 가난 구제는 나라에서도 못 한 다 하니 형님인들 어찌하시나. 우리 양주 품이나 팔아 살아가세.”

흥부 아내 응하고 서로 나서 품을 판다.

[A] 용정(春精)*하여 방아 찧기, 술집에 가 술 거르기, 초상난 집 제복 짓기, 사고 있는 집 그릇 닦기, 굶는 집 떡 만들기, 시궁밭치 오줌 치기, 해빙하면 나물 캐기, 춘모 갈아 보리 놓기, 온 가지로 품을 팔고, 흥부는 이월동풍 가래질하기, 삼사월에 부침질하기, 일 등 전답 무논 갈기, 이 집 저 집 이영 엮기, 날 굶은 날 멧석 땀기, 시장 갖에 나무 베기, 무곡 주인 역인 서기, 각 읍 주인 샅길 가기, 술밥 먹고 말짐 신기, 오 푼 받고 마철 박기, 두 푼 받고 똥채 치기, 한 푼

받고 비 매기, 식전이면 마당 쓸기, 이웃집 물 길기, 진주 감영 돈집 지기, 대구 감영 태전 지기, 온 가지로 다하여도 굶기를 밥 먹는 듯하여 살길이 없는지라.

- 작자 미상, 「흥부전」 -

*도착: 춘추시대 노나라의 큰 도적

*관속: 주나라 무왕의 아우. 무왕이 죽은 뒤 주공을 모함하고 상나라 주의 아들 무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용정: 곡식을 찧음.

3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놀부는 속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 ② 놀부의 처는 신분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 ③ 마당쇠는 주인의 의도를 알고 미리 행동하고 있다.
- ④ 흥부의 처는 집에 돌아온 흥부를 보며 자신을 탓하고 있다.
- ⑤ 흥부는 나라의 빈민 구제 방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32. <보기>와 [A]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판소리’는 창자(소리꾼)가 고수와 함께 장단에 맞추어 이야기를 창(노래)과 아니리로 엮은 공연 예술이다.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을 주로 그려 냈으며, 풍자와 해학이 풍부하다. 서민에서 양반까지 관객층이 폭넓어 이들의 언어가 혼재하며, 이들의 흥미를 반영해 공연 상황에 따라 특정 장면을 축소·확장하기도 한다. 이 소설은 ‘판소리’가 소설화되어 정착된 것으로, ‘판소리’의 특징이 드러난다.

- ① 다양한 종류의 품 팔기를 보니, 그 시대 서민들의 삶이 소개가 되었군.
- ② 일정한 음보가 반복되는 것을 보니, 소리 공연인 판소리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한자어와 고유어를 동시에 사용한 것을 보니, 판소리가 소설화되면서 해학성이 강화되었겠군.
- ④ 문장의 호흡이 짧은 것을 보니, 이 부분은 판소리 공연에서 창자가 빠른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겠군.
- ⑤ 열거의 방식으로 내용을 서술한 것을 보니, 이 부분은 판소리 공연에서 내용이 줄거나 추가될 수 있었겠군.

33. ㉠의 흥부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상가상(雪上加霜)
- ② 역지사지(易地思之)
- ③ 전화위복(轉禍爲福)
- ④ 조삼모사(朝三暮四)
- ⑤ 타산지석(他山之石)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순이, 벌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웁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순이, 포도 넝쿨 아래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 장만영, 「달·포도·잎사귀」 -

(나)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죽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지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 쾅쾅 짖어 그 짚신 짚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냐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 송수권, 「까치밥」 -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통해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전원예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35. (가)를 쓰기 위해 구상하는 과정에서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을 달밤의 서정’을 시로 표현하고 싶어. 시란, 언어의 그림이라 해서 다양한 이미지의 활용이 필요해. 쉬운 단어로 참신하게 표현해야지.

- 달빛을 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면,
 - 밀물처럼 밀려오다 ①
- 달빛을 의인화하여 친근하게 표현하면,
 - 고요히 앉아 있다 ②
- 달빛을 신선하게 표현하면,
 - 과일보다 향그럽다 ③
- 달빛의 하강적 이미지를 강조하면,
 -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르다 ④
- 달빛과 포도의 조화를 표현하면,
 - 스며 고웁다 ⑤

3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작가는 도시 문명으로 인해 사라지고 잊혀가는 우리의 고향과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힘든 삶을 견뎌온 서민의 삶에 공감하였으며, 그들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애정으로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① ‘고향’은 ‘서울’과 대비되는, 화자가 관심을 가지는 공간이군.
- ② 잊혀가는 소중한 전통 문화에 대한 안타까움이 ‘까치밥’에 나타나 있군.
- ③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힘든 삶을 견뎌온 서민의 삶을 형상화하였군.
- ④ ‘짚신’을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군.
- ⑤ ‘머나먼 길’에는 ‘아이들’에게 펼쳐질 밝은 미래에 대한 작가의 확신이 드러나 있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제1장>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제2장>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제5장>
 -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

(나)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 벗과 또 더하여 무엇하리. <제1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 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닐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제3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끝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렇게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제5수>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

*시기며: 시키며

3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높이고 있다.
 - ② (나)의 제1수는 전체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4음보를 사용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각 연의 마지막 행에 시상이 집약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대구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8.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자아 성찰의 매개물이다.
 - ② ㉠과 ㉡은 모두 감정이 이입된 소재이다.
 - ③ ㉠은 설움을, ㉡은 흥모의 감정을 유발한다.
 - ④ ㉠은 수용해야 할, ㉡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 ⑤ ㉠은 초월적 힘을, ㉡은 세속적 권력을 상징한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시가 속의 ‘자연’은 화자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또는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때 화자는 다양한 자연물의 속성에서 본받고자 하는 덕목을 찾아 이를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내면화한다.

- ① (가)의 ‘청산’은 현실 도피의 공간이다.
- ② (가)의 ‘새’는 화자가 합일하고자 하는 자연물이다.
- ③ (나)의 ‘다섯’은 바람직한 삶의 덕목을 담고 있다.
- ④ (나)의 ‘꽃’은 본받아야 할 대상과 대조적인 존재이다.
- ⑤ (나)의 ‘그’는 화자가 내면화하고 싶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만도는 전쟁에 나간 아들 진수가 돌아온다는 통지를 받고 마음이 들떠 기차역 정거장으로 나갔다.

[정거장 대합실]에 와서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 있노라면, 만도는 곧잘 생각키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을 찬 기운이 짙 스쳐 내려가는** 것이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진 이끼 낀 나무토막 같은 팔뚝이 지금도 저만큼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바로 이 [정거장 마당]에 백 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만도도 섞여 있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모두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를 못했다. 그저 차를 타라면 탈 사람들이었다. 징용에 끌려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십이삼 년 옛날의 이야기인 것이다.

북해도 탄광으로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틀림없이 남양 군도로 간다는 사람도 있었다. 더러는 만주로 가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만도는 북해도가 아니면 남양 군도일 것이고, 거기도 아니면 만주겠지, 설마 저희들이 하늘 밖으로 사 끌고 가겠느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들창코로 담배 연기를 푹푹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좀 덜 좋은 것은 마누라가 저쪽 변소 모퉁이 뱃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서 한눈도 안 팔고 이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 속에 성냥을 두고도 옆 사람에게 불을 빌리자고 하며 슬며시 돌아서 버리곤 했다.

(중략)

만도는 정신이 아찔했다. 공습이었던 것이다.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든 비행기가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이었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대가 뒤따라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그만 났을 잃고 **굴 안**으로 도로 달려 들어갔다. 달려 들어가서 굴 바닥에 아무렇게나 꽂 옆드리고 말았다. 그 순간이었다. 쾅! 굴 안이 미어지는 듯하면서 다이내마이트가 터졌다. 만도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만도가 어렴풋이 눈을 떠 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이 하나 놓여 있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 낀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만도는 그것이 자기의 어깨에 붙어 있던 것인 줄을 알자, 그만 으악! 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재차 눈을 떴을 때 그는 폭신한 담요 속에 누워 있었고, 한쪽 어깨죽지가 못 견디게 쿡쿡 쑤셔댔다. 절단 수술은 이미 끝난 뒤였다.

꽤액 기차 소리였다.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오는가 보았다. 만도는 앉았던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서며, 옆에 놓아두었던 고등어를 집어 들었다.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플랫폼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하였다. 쩌랑쩌랑 하고 종이 울자, 한참 만에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기관차의 옆구리에서는 김이 펑펑 풍겨 나왔다.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시꺼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밀려 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

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저 쪽 출찰구로 밀려가는 사람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절룩거리면서 걸어 나가는 상이군인이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려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 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웠을 리는 없을 건데.....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을 때였다. 분명히 뒤에서,

“아부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 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펠릭거리**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눈앞이 노오래지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허리가 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에라이 이놈아!”

만도의 입술에서 모지게 튀어나온 첫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기 무슨 풀이고, 이기.”

“아부지!”

“이놈아, 이놈아.....”

만도의 들창코가 크게 벌름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 곁에 눈물이 **피죄죄**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도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거나 한 듯 험한 얼굴로,

“가자, 어서!”

무뚝뚝한 한 마디를 내던지고는 성큼성큼 앞장을 서 가는 것이었다. 진수는 입술에 내려와 묻는 짹짹한 것을 혀끝으로 날름 훔쳐 버리면서, 절름절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앞장서 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끄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다.

— 하근찬, 「수난이대」 —

4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감각적 표현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41. 윗글의 내용 흐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B	C	D
정거장 대합실	정거장 마당	굴 안	울타리
진수를 기다리는 만도	징용을 떠나는 만도	공습으로 팔을 잃은 만도	진수와 재회하는 만도

- ① A는 시간상 C와 D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 ② B에서 비롯된 인물의 내적 갈등이 C에서 해소된다.
- ③ B에서 C로 공간이 변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이다.
- ④ C에서 D로 장면이 전환될 때 '기차 소리'가 사용된다.
- ⑤ D에 드러난 '만도'의 태도는 C의 체험과 관련이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에는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특히, 역사적 수난을 순박한 인물들의 2대에 걸친 삶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수난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 차원의 비극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 ① '등골을 찬 기운이 짝 스쳐 내려가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 때문이군.
- ②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서 개인의 비극이 공동체의 비극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군.
- ③ '한쪽 바짓가랑이가 필력거리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삶의 모습이군.
- ④ '물코'를 들이마시고 '피죄죄하게' 눈물을 흘리는 순박한 인물이 역사적 수난을 당하는군.
- ⑤ '앞장서 가는 만도'와 '뒤따라오는 진수'에서 2대에 걸쳐 이어지는 수난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작가 이준섭은 딸 은지와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를 창작한다. 치매로 고생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섭은 은지와 고향에 간다. 준섭의 가출했던 조카인 용순도 찾아온다. 용순은 유일하게 자신을 감싸주었던 할머니의 죽음에 애통해 하며,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던 준섭에게 분개한다. 문학잡지 기자인 장혜림은 장례식을 취재하던 중 용순을 만나게 된다.

S# 143. 동화 - 봄(낮)

준섭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지혜가 쌓이는 건 은지도 이제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지혜가 가득 차면 마음속에서 삭아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넘치고 싶은 사랑이 된단다. 할머니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좋은 일들도 다 그 사랑 때문이고.....

아이 ㉠ (NAR*) 아빠 말씀으로는 할머니가 은지에게 나이와 키와 지혜를 나눠주시고 어린아이가 되어 우리 곁을 떠나시는 거나, 그 영혼이 다른 곳에서 새 아기로 태어나 시게 되는 것도 다 그 사랑 때문이랍니다.

S# 144. 노제 마당(아침)

준섭, 은지를 데리고 상여 준비를 하고 있는 노제 마당으로 온다.

신촌양반 어여, 나온가. 이것이 자네 어머니 되시고 갈 버스지. 버스여.

동팔 버스도 보통 버스여? 20기통짜리 최고급이여.

김우석 근디, 휘발유는 어디 갔다냐. 출출헌디.

추씨 아따, 이눔아. 이 버스가 휘발유로 가간디. 정성으로 가는 거제.

S# 145. 용순의 차 안(아침)

용순 뒷좌석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다. 용순의 차 문을 여는 장혜림

장혜림 빗새라구 알아요? 자기 등지가 없어서 비만 오면은 이 나무 저 나무 밑으로 울어대는 새가 빗새래요.

용순 이상한 새도 다 있네.

장혜림 이 선생님 소설 속에 나오는 새예요.

둔덕 위의 나무 곁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준섭

장혜림 (소리) 돈 벌러 간다고 어느 날 집을 나간 가족 중의 누군가가 낯선 땅에서 비바람 피할 의지처나 찾았을까 애태웠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 새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정성들여 가꾸면서 모이도 뿌려 놓고 했대요.

말없이 앞만 보고 앉은 용순과 계속 얘기하는 장혜림

장혜림 물론 할머니도 그런 마음은 있으셨겠죠. 하지만 치매를 앓는 할머니로서는 너무나 깊은 생각인 거 같아요. 소설가는 소설 속의 인물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낸대요. (용순을 보며) 물론 그 생각들만큼 실제 사는 게 훌륭한 건 아니지만요. 자기 사는 거 **변명**하는 게 소설이라 그러잖아요.

용순, 둔덕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준섭, 나무 옆에 앉아 있다. 용순의 옆 시트 위에 동화책이 놓인다.

장혜림 (소리) 이준섭 선생님이 처음 쓴 동화인데 한번 읽어 보실래요?

준섭을 보던 용순, 눈을 돌려 동화책을 본다.

(중략)

S# 162. 동화 - 봄(낮)

흰 포를 덮고 누워 있는 준섭 모

아이 ㉠ (NAR) 할머니께서는 오늘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 주신 모양이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지는 그 할머니의 영혼이 조용한 숲길을 타고 슬며시 은지네를 떠나시며 옷을 벗어 개어 놓듯 곱게 벗어 놓고 가신 하얗고 조그만 옛날 모습 앞에 몹시도 섭섭하고 슬픈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은지 들어와 준섭 모를 들여다본다. 뒤돌아보는 은지. 사과나무 꽃잎이 떨어지고 나뭇가지 사이로 흰 배추꽃나비 날아오른다.

아이 ㉡ (NAR) 할머니의 영혼은 팔랑팔랑 하얀 날갯짓으로 올라가는 배추꽃나비 위에 실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워 있는 준섭 모의 상반신

아이 ㉢ (NAR) 은지는 그저 그 할머니의 영혼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기를 마음 깊이 빌어 드립니다.

사과나무의 꽃잎이 떨어지는데 나무 아래 서 있는 은지

아이 (NAR) 할머니 고마워요. 안심하고 떠나세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나눠주신 나이는 제가 잘 맡아서 간직하고 있을게요.

S# 163. 용순의 차 안(낮)

동화책, 할머니가 그림에서 빠지면 동화책을 덮는 용순의 손

아이 ㉣ (NAR) 그래서 이답에 어른이 되고 나면 제가 할머니 대신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그 나이를 다시 나눠 줄 거예요. 은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용순. 멀리서 곡소리가 들린다.

- 이청준 원작, 육상효 각색, 「축제」 -

*NAR(narration): 내레이션. 영화나 연극, 방송극 따위에서, 이야기 형식의 해설

4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적 배경에 의해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가 대립적 관계로 변하고 있다.
- ④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⑤ 장소의 변화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4. **면명**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용순아, 사실 나는 늘 너를 잊지 않고 기다렸단다.
- ② 용순아, 할머니는 너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란다.
- ③ 용순아, 그동안 먹고살기가 바빠서 너를 못 찾았단다.
- ④ 용순아, 빗새는 특별히 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다.
- ⑤ 용순아, 할머니는 병환 중에도 생각이 깊은 분이셨단다.

45.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현실에서의 할머니 장례식과 할머니의 죽음을 다룬 동화의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동화는 주로 은지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내레이션은 인물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고 인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시간의 간격이 생긴 동안에 설명되지 않은 사건을 말해주기도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